

# 농업·농촌의 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aral Community

임 수 진

Lim, Su-Jin

(limsoojin@ekr.or.kr)

한국관개배수위원회 회장

한국농촌공사 사장



지난 3월 12일 한국농촌공사 사장으로 취임 후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 정관에 의하여 KCID 회장직도 더불어 맡게 되었다.

회장직을 맡은 후에야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토목 및 물 관련 전문 기술인들의 모임인 KCID의 위상과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큰 소명으로 맡겨진 KCID 회장직을 전 회원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국내·외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KCID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작금의 농촌은 과거 생산터전이라는 1차원적 개념으로부터 농업인·도시민의 복합생활공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대 전환되고 있다. 또한 농업은 생산중심의 량적 문제에서 質의 문제로 정책의 중심이 전환되고 있다.

우리 KCID도 지금까지 주력을 기울여온 농업용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농업과 농촌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관개·배수시설들이다. 지금까지 관개배수를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주로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물 공급 차원에서 설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개배수 시설이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 지역용수를 공급하는 젖줄로서, 그리고 온 국민의 휴양 정주 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관개배수 시설에 대한 투자와 유지관리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역할 이상으로 지역주민, 해당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인 농업인 스스로가 용수를 절약하고, 수리시설물의 이용과 관리의 주체로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개관리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과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ICID 제4차 아시아지역회의』의 주제 또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참여(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PIM))”로 충분한 용수의 확보와 정확한 배분, 그리고 관개시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농민 교육 등이 소주제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동안 관개배수 시설에 대한 투자에 비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적었다면 이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었고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참여가 부족했던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제는 관개배수 시설에 대한 투자나 관리의 전 영역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포함하는 수요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을 입안·실행·평가받는 협치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다 깨끗한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공급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차별성 있게 완성하여, 균형 발전시대와 분권시대에 걸맞는 수변개발사업, 친수공간을 활용한 지역사업 등 특성적 개발에도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농촌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실천 방안의 하나로 농림부에서는 2005년부터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 인력육성 대책”을 마련, 농촌지역 리더 육성,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을사무장제’, ‘농촌마을 CEO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이 지역개발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우리 농촌의 경관과 어메니티가 개선된다면 많은 도시민들이 다시 찾고 함께 즐기는 농촌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선순환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DDA, WTO, FTA의 영향으로 농업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환경산업이다. 농업인 그리고 우리 기술인들이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힘찬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이다.